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



내게 찾아온 행운

베살리 도시에 암라팔리라는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 자신의 미모를 팔아서 큰 돈을 번 여인이라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자신의 소유인 암라팔리 동산에 부처님이 5백 명의 비구들과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게 차려입고 수레를 타고서 부처님을 뵈러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을 받은 뒤에 다음 날 자신의 집으로 부처님과 5백 명의 비구승을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초대를 받아들여주자 그녀는 기쁨에 들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기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인생의 굽이굽이를 때마다 훈장도 주고 상처도 주면서 우리를 키워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기회가 닦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조차 모른 채 그냥 흘러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신자라면 적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행운을 다른 이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들

대장경의 바다엔 상상한 부처님 말씀 펄떡펄떡 있는 힘껏 뉘아올려 독자들과 품에 안겨드릴터

위임 있게 짐짓 물었습니다. "그대는 여자라면 수레를 지내야 할 것인데 어찌 거칠게 수레를 몰며 성 안으로 달려가는가?" 암라팔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일 부처님과 비구스님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양 준비를 하려고 서둘러 성 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은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들 도시에 온 부처님을 가장 먼저 초대할 영광을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암라팔리에게 말했습니다. "순금 천 냥을 주겠다. 내일의 공양을 우리에게 양보해라." "싫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돈의 액수를 점점 올렸습니다. 급기야 백냥의 금화를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암라팔리는 완강하였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고 법을 듣는 일일 것입니다. 선업을 쌓고 복을 지어서 돌아오는 과보라면 함께 나누고 양보해야겠지요. 하지만 내 어리석음의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기회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여러분들과 만나 부처님 말씀을 나누게 된 이 기회가 지금 저에게는 참으로 크나큰 행운입니다. 글을 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예전에 흘러보냈던 부처님 말씀을 곁집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에게 찾아온 이 행운을 축하고 격려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대장경의 바다에는 지금 황금 비늘 반짝이는 상상한 부처님 말씀이 한자씩 노닐고 있습니다. 저는 힘껏 뉘아올려 여러분의 품에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 이미명(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이미명'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하여 석사과정 중이던 졸업 경전 및 불교서적을 번역하고 있다. 지금은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서 대장경의 한글번역과 불자들을 위한 강의와 집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기도수행을 통해 덕을 쌓으라고 강조하는 지족 스님. 언제나 말보다 행으로 가르침을 내려준다.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



지족 스님

(태고종 원로위원)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쟁으로 민생에 뒷전이고 나라의 경기는 갈수록 악화돼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며, 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문화가 물밀 듯이 밀려들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계는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사람 사는 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때보다 종교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참보시는相 내지 않아

그러나 우리 불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어야 하건만 불교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예요. 그 이유는 수행자의 무소유 정신이 흐려지고 자비사상은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는 지금 수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행하는 데 승과 속을 구별할 것도 없고, 장소에 구애받을 것도 없습니다. 스님도, 불자도 수행하지 않으면 불교가 바른 법을 펴 나가지 못합니다. 수행이아말로 불교의 힘을 키우는 일이예요. 제가 처음으로 주지 소임을 맡아 문경의 혜국사라는 절에서 살림할 때 은사 화엄 스님과의 일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탁발로 끼니를 때울 때였죠. 은사 스님이 우리 절 근처 절터에 법당을 지어아겠다며 불사를 하라는 것이었

습니다. 혜국사 살림도 빠듯한 마당에 그게 어디 가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런 은사 스님의 말이라도 따를 수가 없어서 구미 도리사 선방에 들어가버렸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즈음 사제가 찾아와 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혜국사로 돌아가 은사 스님에게 참회의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은사 스님이 "돌아서면 잊어버려야지, 그걸 아직도 몸에 걸머지고 다녔느냐"면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출가의 발심을 떠올릴 수 있었죠.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을 수행의 채찍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닦치는 일마다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라라는 겁니다.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탐진치 삼

과거청산? 그것도 집착이지

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이 집착은 번뇌를 낳습니다. 그러니 사는데 괴롭고, 뉘어 버려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참 보시는 상(相)을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상을 뺐을 때

Advertisement for 'Hangeul Hwaeomgyeonghyeondam' (한글 화엄경현담의 결정판). The ad features a large central banner with the title, a stack of books, and detailed text about the publication. It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publisher (Jo-gye-jong), the price (35,000 won per volume), and contact details. The text highlights that this is a new edition of the classic Buddhist text, 'Hwaemgyeonghyeondam', presented in Hangeul for easier accessibility.

는 이미 집착이라는 늪이 번뇌를 일으킨 것이요 놓아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수행입니다. 요즘 과거청산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집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때를 놓친 일입니다. 지금 과거를 정리한다면 새로운 원한을 만들 뿐입니다. 원한은 또다른 원한을 낳는다는 평범한 이치를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개척

자신에게 맞는 수행 찾아야

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군위 압곡사라는 절에서 8년동안 관음기도를 지심으로 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하더군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 어느 노스님을 찾아갔는데, "다 망상이야. 당장 버려" 하시며 귀싸대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 길로 다 버리고 선방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무(無)'자 화두를 듣게 되었어요. 지금은 지장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사상은 원웅이타(圓融利他) 정신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지장보살의 정신이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제도하겠다는 큰 원을 세운 지장보살이 많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발을 끌어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길을 매주어야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남이 다해놓은 것을 수확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는 삶에는 극락도 없고 천당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덕이 쌓입니다. 덕을 쌓아나감으로써 마음이 순화되어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지장기도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참나를 찾아야 해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나라는 것도 없어야 진정한 공부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여러서는 인간들은 죽는 순간까지 집착을 놓지 못하거든요. 죽는 순간 지식, 부인, 재산에 집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수행을 하다보면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선이 맞는 사람은 참선을 해야 하고, 염불이 맞는 사람은 염불을 택해야지요. 근기는 염불에 가까운데 참선이 수승하다고 하여



지족 스님은 "입을 열는 순간 다 거짓말"이라며 법문을 아끼면서도, 찾아오는 후학과 불자들에게는 평생 공부를 아낌없이 내려준다.

참선만 한다면 진척이 없을 수 밖에요. 이것 또한 번뇌를 끌고 다니는 꼴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선이 맞을 것이고, 어떤 이는 염

잘 먹고 잘 사는게 불교다

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둘다 하는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남을 속이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부처님 가르침이 따로 있는게 아니예요. 부처님이 깨우친 도리는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입니다. 물은 항상 물로 있고, 나무는 항상 나무로 있는 것. 그것이 불교입니다. 출가하기 전 제가 화엄 스님에게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밥 잘 먹고 퐁 잘 찌는

게 불교다"하시는 화엄 스님의 말씀을 듣고 출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8만4천 경전에 있는 가르침은 모두 부처되는 방편입니다. 큰스님들을 찾아보면 하시는 말씀은 한결 같습니다. 다 하심(下心)이라고 합니다. 사람 노릇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불교를 보면 계(戒)를 철저히 지키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계는 불교에서 법(法)이예요. 우리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계가 필요함입니다. 내가 참됨을 지키면 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지만, 내가 미혹하기 때문에 계가 있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면 부처 됩니다. 지계에 승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예요. '안 지켜도 괜찮겠지. 누가 벌주는 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할 마구입니다. 불교가 실천하는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바로 실천을 하세요. 정리=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해공 스님 (下)

요즘엔 의술이 발달해 수술을 통해 치료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시는 암에 걸렸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형으로 알고 있던 시절이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스님은 주위의 수술 권유를 물리치고 절에서 기도하겠다고 했다. 스님은 바로 순천 선암사로 향했다. 주지 용곡 스님의 허락을 얻은 그날부터 기도에 들어갔다. 가자마자 비와 깨끗한 걸레를 여러 개 준비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수리판타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없이 믿고 따른 것처럼 구석구석 뒤고 또 뒤었다. 법당을 뒤고 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관음경>을 읽은 뒤에 관세음보살을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참회정진을 했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열심히 절을

이 본의는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렇게 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 다시 기도 하는데 기운이 났다. 새벽, 사시, 오후, 저녁의 사분 정진 뿐 아니라 잠자고 예불하며 공양하는 시간만 빼놓고는 쉬는 시간 없이 정진했다. 삼칠일 기도를 마치기 전날 밤 사분정진의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신기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공양시간이 되어 대웅전 왼쪽 옆에 있는 설선당으로 들어가 있었다. 수십명 대중들이 청산, 백운으로 나뉘어 방안에 빙 둘러 앉아 공양을 하는데 갑자기 어간문이 열리더니 큰 사람이 들어왔다. 다들 놀라서 쳐다보는데 자신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가 해공 스님에게로 가서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진좌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이제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품속에서 무슨 서류봉투를 꺼내서 주었다. <관음경>에 관세음보살이 중생교화를 위해 32응신을 나타낼 때 국왕의 모습으로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정말 그런 모양이었다. 다음 날 가쁜한 마음으로 기도회장을 한 뒤 대



그림·문병성

암진단받고 삼칠일 기도 미운사람 용서하고 치유

구로 가서 경북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주치의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씻는 듯이 완전하게 다 나아서 암이 흔적도 없게 버렸다는 것이다. 관암사는 '갯바위절'이라는 뜻으로 갯바위 부처님을 발견한 백암 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해공 스님이 속세의 인연의 끈을 찾아 출가해서 백암스님의 은법을 이어 관암사를 대구의 전법사찰로 잘 지켜가고 있다. 관암사에서 득도 수계한 이후, 6년간의 고행을 겪으신 후 중도 수행을 하신 부처님의 체험을 몸으로 직접 익히고 싶어서 법어사 1년, 그리고 경봉스님이 주석하셨던 통도사에서의 1년이 넘는 행자 생활이 중으로서 가장 보람있게 지내던 시절이라며 수행자의 길을 가는 후학들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행자시절을 잘 참고 견디라며 격려한다. 총무원에서도 여러 형편상 상근을 하지 못하는 까닭에 총무원회의에 오면 결재가 밀리기 마련인데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저마다의 급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면 빙그레 웃으면서 그대로 가는 것이 빠른 것이라며 고속도로의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바쁘다고 추월선으로 또 추월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을 보면 '뭐가 바쁜 일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비켜주지만 잠시 뒤에 보면 휴게소에서 빈둥거리려는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헬만한 것은 다 양보하는 것이 좋고 정말 바쁘게 할 일은 마음공부인데 말이야" 웃으시는 해공 스님은 정말 달고싶은 수행자다. ■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마루 바닥에 앉으면 채로 고개만 올렸다 내리는 꼴을 하였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기도의 공덕에 대한 회의를 듣기도 하였으나 이 일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물러나지 않고 정진했다. 그러나 그것은 보름이 지나면서 아주 허망하게 느껴졌다. 만일 이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생각이 미치자 앞드렸던 몸이 다시 일어나지지를 알았다. 그대로 앞드려 있는데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그렇게 미워하며 죽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생각났다. 은사스님과 자기를 절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찾아와서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몽둥이질까지 하였는데 자신과 부딪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연세가 드신 은사스님마저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옆에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떠올랐는데 그에게 찾아가 용서하고 미워한 마음을 사죄하고 싶었다. 이리저리 그가 살고 있을 곳을 마음속으로 찾아내어 만나서는 무릎꿇고 빌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오히려 계면쩍어 하면서 자기들이 한 일

지족 스님은?



새벽 1시30분 일어나 3시간 참선 → 예불 → 독경

1980년 서울의 동쪽 끝 김동에서 지장기도도량 대홍사를 일궈 강동의 터줏대감으로 통하는 지족(知足) 스님. "입을 열는 순간 다 거짓말이 된다"면서 법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족 스님은 "큰스님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스님들이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되뇌일 뿐 자신의 법문을 할 줄 모른다"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진정한 등불이 되어줄 큰스님이 많이 나와야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스님은 찾아오는 후학과 불자들에게는 평생 공부를 아낌없이 내려준다. 매일 새벽 1시 30분 일어나 3시간동안 화두참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스님은 4시 30분 새벽예불을 올리고 <천수

경> <지장경> <금강경> 독송도 빠뜨리지 않는다. 8년째 아침공양을 하지 않은채 인근 공원길을 산책한 다음 불자들을 맞고 있다. 36년 경복 상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54년 상주 남장사에서 화엄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남장사와 법어사 강원을 거쳐 58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문경 해곡사, 구미 도리사, 포항 보경사, 울산 내원암 등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72년부터 8년동안 서울 광명사에 주석하다가 80년 지금의 대홍사를 창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님의 법호는 청산(靑山), 은사 화엄 스님이 내려주었다.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찾아가는 포교, 지역사회로의 확장’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강원일보사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오대산의 개산일에 즈음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강원도의 대표적 축제’라는 모토로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국민문화·수행공간으로 개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로 마련한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오색 가을 단풍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껏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는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평창군, 탄허불교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2회 산사영화제

문화와 웰빙의 시대에 찾아가는 영화시사회를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2회 산사영화제를 개최합니다.

- ◎ 상영영역 : 초승달과 밤배
- ◎ 작품소개 : 정채불선생의 "초승달과 밤배"을 원작으로 공평한 삶 속에서 무공해 소년인 그러가는 천진난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서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본선출품작
- ◎ 감독 : 장길수 ◎ 출연배우 : 이요섭, 한예린, 장서희 등
- ◎ 일시 : 2004. 10. 8. (금) 19:00 ~ 21:00
- ◎ 장소 : 월정사 적광전 앞
- ◎ 주관 : 월정사

제2회 산사음악회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오대산에서 제2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 출연진 : 벨리트릭스, 첼로사랑, 이정, 영탁스클럽, 정민, 남상우, 김병조
- ◎ 일시 : 2004. 10. 9. (토) 19:00 ~ 20:30
- ◎ 장소 : 월정사 적광전 앞 야외무대
- ◎ 주관 : 월정사

한·중 오대산 사진전

한·중 불교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문수성지인 오대산의 자연풍광과 사찰들의 일상을 담은 한·중 오대산 사진전 2천여 점의 전나무 숲길에서 전시합니다.

- ◎ 일시 : 2004. 10. 8. ~ 11. 30.
- ◎ 장소 : 전나무 숲길 및 용금루 상설전시장
- ◎ 주관 : 월정사 성보박물관

* 이 외에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의식 및천전 보살개법회, 연다래 및 육법공양, 유물로 보는 오대산 문수신앙특별전, 오대산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오대산 사진 공모전, 국제 불교문화공연, 영산작법 및 악출 시연, 오대산 등반대회, 지역주민만민당, 강원도 특산물 전시, 장애인들끼리 주홍스님 서록전, 서리전, 티벳탕카전, 서예전, 예술인등전 등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기 2548. 9.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님
강원일보사 사장 최승익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TEL 033-332-6664~5